

# 옛사람들의 道 구하며 살아간 야인

## 역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 ⑦ 석주 권필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는 시(詩)로 인해 번고름 겪은 일이 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절창(絶唱)의 시를 남겼기 때문에 이름을 남긴 경우도 흔하다. 조선 중기에 문필가로 손꼽히는 석주 권필(石洲權 1569~1612)도 바로 그런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자유로운 기질의 소유자로 구속을 싫어했다. 그는 한때 가난을 염려한 동료들의 추천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음에도 상부에 예를 갖추지 않은 채 곧바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런 그의 기질이나 “판대를 하고 예조에 나가 예를 갖추라”는 말에 “그런 일을 잘 못한다”고 하고 벼슬을 그만두었던(朝家共賀昇平樂) 그가 바르막 하여 평민으로 쫓겨났다(誰遣危言出布衣)가 바로 권필의 생애를 살았던 그의 일면을 드러낸 셈이다. 도연명의 기개를 닮아서일까 아니면 그가 살았던 시대가 난세였기 때문일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광해군의 비열했던 유씨 일족들이 권력을 전횡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유비(柳希奮)의 오라버니 유희봉(柳希翁)의 전횡은 도를 넘었다. 그러므로 임숙영(任叔英)이 <책문(策文)>을 지어 유씨 일가의 방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과거에 떨어지는 변고(變故)가 생겼다. 이로 인해 세상의 의기 있는 선비는 비분강개했다. 권필의 <궁류시(宮柳詩)>는 이를 배경으로 지은 풍자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權 碑 墓 銘 嗚呼此高陽縣滑陽里者石洲權先生之所藏也其世德俱刻于其左先墓石先生即習齋公之第五子也嗚呼先生生於時大夫士慕義趨風一見顏面則誇以爲榮其沒也賜摧淚涕以至今未嘗過門者亦悲嗟愴歎愈久而不能已愚未知其以何然耶宜以其能詩而然耶先生諱幹字汝章其爲人佚宕豪放志蓋宇宙而空一世凡世之富貴榮利紛華盛麗人所嚮慕歎願者一無所入於其心惟以詩酒自娛嘗一再入場屋復不屑也松江鄭公嘗遠謫先生於道往見之松江驚曰吾今日見天上仙人此行豈不幸哉諸公爲其貧也除童蒙敎官亦不屑於辭使門徒或告曰當束帶詣禮曹叅謁先生憮然辭曰此非徒非能也遂謝去入江華府尊室以居遠近學子負芻而至者甚衆後之入江華府尊室以居遠近學子負也府官溺貨故錢使父獄先生正其罪遂棄江華歸玄石江上月沙李公嘗使顧先生正其罪遂棄江華歸下月沙懼非吾敵極極送文士以從先生以白衣與馬宣廟敎曰權某詩可寓若干篇以追先生以白衣與馬

송시열이 지은 권필 '묘갈명(墓銘)' <사진출처=국조인물고>



석주 권필 유택비.

물이라 하겠다. 그가 차를 즐긴 정황은 '고석당명(古石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연히 땅에서 묻혀 있던 돌솥을 자신의 곁에 둔 연유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집종이 밭에서 땅을 파다가 괴이한 물건을 얻었는데 (돌솥을) 두드리니 소리가 났었다. 묻어 있는 흙 자국을 파내니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작은 돌솥이었다. 돌솥의 손잡이는 (길이) 3촌쯤 되고 2층 정도를 담을 수 있을 만하였다. (돌솥을) 모래로 닦아내고 물로 세척하니 빛나고 깨끗하여 아꼴 만하여 내 곁에 두게 하고, 차를 끓이거나 약을 달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다. 때때로 (돌솥을) 아무만지며 희롱하기를 돌솥아, 돌솥아 하늘이 돌을 만들어 준 것이 몇 해이던가. 솥씨 좋은 장인이 깎아서 돌솥을 만들었네. 사람의 집에서 사용하던 자가 또한 몇 해이던가. 흙 속에 묻혀 세상에서 쓰지 못한 것이 몇 년이던가. 그런데 지금 내가 얻게 되었으니 아! 돌은 만물 중에 가장 천하고 또 단단한 것이다. 그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 사이를 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데 하물며 가장 귀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 서라. 마침내 명을 지어 새긴다. 이 돌솥을 얻은 날은 을미년(1595) 정월 16일이고 글을 쓴 날은 정월 23일이다. 명(銘)에 버려두면 돌이 고 사용하면 그릇이라고 하였다. (女奴於田中掘地得一物塊然叩之聲I 卽土痕剔辭紋乃小石也柄三寸中可受二升許沙以磨之水以瀦之光潔可愛余命置諸左右以供煎茶煮藥之具時復摩挲以愛之曰乎乎與天作石者幾年巧匠而器之爲人家用者又幾年埋在土中不見用於世者又幾年而今爲吾所得噫石物之最賤且頑者其墮顯之間不能無數也如此況最貴最靈者耶遂作銘以刻之得之日乙未正月十六銘之日其月之二十三銘日捨則石用則器)

그가 돌솥을 얻는 해는 그의 나이 34세 때의 일이다. 차와 약을 끓이기에 알맞은 돌솥을 얻어 곁에 두고 완상하는 즐거움을 글(銘)로 지었던 것이다. 그가 돌솥을 얻는 날은 1595년 1월 16일이고, 돌솥에 대한 글을 쓰고 새긴 날은 정월 23일이었다. 일주일 만에 돌솥에 명문을 새겨 하찮은 돌이 귀품으로, 돌솥으로 거듭 변화하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해 두었다. 아! 만물은 그 때를 만날 때에 빛을 발하는 법이다. 그가 "버려두면 돌이고 사용하면 그릇이 된다(捨則石 用則器)"는 말을 그 이치를 뜻하는 것이다. 그가 초야에 묻혀 출사(出仕, 벼슬에 나아가는 것)를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시절의 인연을 짐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여간 천시(天時)를 얻는 것보다 때를 얻는 일(得時)이라 중요하다는 말은 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던 듯하다. 그는 저술로 <석주집> 외에도 한문소설인 <곽석전(郭索傳)> <장경천전(章敬天傳)> <주생전(周生傳)> 등을 남겼다.



박동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평소 가난한 백성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던 그는 상대적으로 지배층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런 그의 태도는 그의 저서 <답송보서(答宋甫書)>에 "대번 고관대작의 집을 만나면 반드시 집을 뺄고 지나가고, 누추한 거리의 초라한 집을 보면 반드시 서성이며 돌아보면서 팔을 베고 누워 물만 마시고 있더라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을 본 듯이 생각했다(每遇朱門甲第則必唾而過之而見陋巷蓬室則必徘徊眷顧以想見曲肱飲水而不改其樂者)"고 한 대목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답송보서(答宋甫書)>에는 "장차 산야에 물러나 마음을 거두고 성정을 길러 옛사람이 말한 도라는 것을 구하고자 했다(思將退居山野收心養性以承古人所謂道者)"고 하였으니 그가 야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연유를 충분히 드러낸 셈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가 고인의 도를 구하며 열독했던 책들은 임종 시에 그의 곁을 지켰던 <근사록(近思錄)>, <주자전서(朱子全書)> 등이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울긋불긋 선비였다. 국난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의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대궐에 나아가 상소했던 일이나 일본과 화의(和議)를 주창하며 임금에게 아첨한 정승의 목을 벨 것을 요청했던 것에서 확인된다.

한편 그가 고결한 선비였음은 그의 스승 정철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바로 귀양길에 오른 스승을 찾았을 때에 정철은 권필을 보고 '내가 오늘 천상의 신선을 보았으니 이번 행차가 어찌 다행스럽지 않은가'라는 대목이다. 특히 그는 삶이 소박해서인지 몇몇의 승려들과 깊이 교류했던 흔적뿐 아니라 사찰을 유람했던 흔적을 남겼다. 그의 문집 <석주집(石洲集)>에 의하면 수증사(修證寺)와 백련사(白蓮寺), 영통사(靈通寺) 등을 유람하며 지은 시와 잡 스님, 원 스님, 범일 스님, 송도의

### 동몽교관 임명에 禮 안 갖추고 자유로운 기질로 벼슬 그만뒀 충심 담은 직언에 귀양 당해도 가난한 백성에 연민 잃지 않아요

의 스님과도 교류하며 화답한 시가 남아 있다. 지면관계 상 다 소개할 수 없기에 우선 '잡 스님이 종이를 보내며 (그의) 시를 찾기에(峯上人送紙索詩)'라는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에 짚신이 몇 켤레나 닳았을까(平生幾兩鞋) 청한 것은 그대 혼자뿐이요(淸閑君也獨) 골몰하는 것은 세상이 모두 그렇네(汨沒世應皆) 괴안의 세계엔 도달하기 어렵나니(彼岸難容到) 진공에 어이 올라갈 수 있으리오(眞空可得階) 늙은이는 재주와 힘이 줄어들었으니(老夫才力退) 수송패에 비하면 몸시 부끄럽구나(深愧水松牌)

실로 사람은 무엇을 찾으려고 길을 헤매는 것일까. 수 켤레의 짚신이 닳아 해지도록 이리저리 찾아 헤매던 건 아마도 뜬 구름 같은 부귀와 명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속인은 언제나 마음이 혼란하고 밖으로 향해 있는 법이다. 따라서 맑고 고요할 수 있는 건 그대 잠 드러뿐이란단. 세상일에 부주한 사람은 괴안(이상세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신은 이미 재주와 권력이 쇠라해진 사람인데도 잠 승려가 시를 청한 것

은 "수송패에 비하면 몸시 부끄럽구나(深愧水松牌)"라고 하였다. 그럼 수송패란 무엇인가. <운산잡기(雲仙雜記)> '수송패(水松牌)'에 그 내력을 "이백이 자은사(慈恩寺)를 방문했을 때 천하의 문장가에게 시를 받고 싶었던 자은사의 승려는 오교분(吳膠粉)을 바른 수송패(水松牌, 소나무로 만든 패)를 이백에게 바치며 시를 청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백이 수송패에 시를 지어주니 자은사 승려는 그 답례로 현사발(玄沙鉢), 녹영매(綠英梅), 단향필격(檀香筆格), 난검고(蘭 袴), 자경상(紫瓊霜) 등 귀중한 물품을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 승려가 권필에게 종이를 보내 시를 청한 일은 마치 자은사 승려가 이백에게 시를 청한 것과 비견되는 일임을 은근히 드러낸 것은 아닐까. 하여간 권필은 이백처럼 시에 능한 사람이 아니기에 부끄럽다는 것이리라.

아울러 그는 유무에 대한 관점과 논리를 위한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그가 '법림 승려에게 써서 보이다(書示法林上人)'에서 "도란 것은 종래 의심을 풀지 못했으니(此道從來未決疑) / 분분한 의논들 어느 것이 참임을 아는가(紛紛何者是眞知) / 신령한 근원은 바로 기심(機心)을 잊는 데 있고(靈源政在忘機地) / 오묘한 법은 원래 말 없을 때에 있는 법이라(妙法元存不語時) / 유를 말하고 무를 말하는 것 모두 환망이요(說有說無都幻妄) / 마음을 보느니 본성을 보느니 (하는 말은) 더욱 지루하여라(觀心觀性轉支離)"라고 한 대목에 또렷이 드러난다. 더구나 그는 불이문(不二門)의 경계를 "6년 동안 고통스러워 말을 잊었으니(六年辛苦已忘言) / 모든 일이 다 불이문으로 돌아갔네(萬事都歸不二門)"라고 노래한 바가 있었으니 그는 실로 불교의 원리를 요해(了解)했던 선비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는 불교를 이해했던 선비로 차를 즐긴 인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대출력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광주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18기 신입생 추가모집

◆기초반 1년 과정 : (평염불) 천수경 부터 ~ 지장불공, 퇴공, 관음시식, 화엄시식 순으로  
◆2년 과정 : 모든 재반의식(49재, 천도재, 상주권공, 범패의식, 천수바라춤, 도량계), 다게(나비춤), 회심곡, 법고무(해공스님 직강)

지원자격 스님, 포교사, 교임, 법사, 일반불자 등 등  
통신생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날 12시까지  
입학식 서기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추가등록 2016년 4월 30일까지 등록 마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우, 502-242)  
문의전화 H·P 011-624-8604 / ☎ 062-362-8604

전통의식, 범패, 상주권공, 각매, 영산, 깃소리 제대로 배워서 후계자 되실 분  
기간 약 5년 20~30대 초반 돈 일체 받지 않음(절에서 함께 생활하실 분)

해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출시	
1 대령/관육	15 신중불공	29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계)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2 상주권공지장불교의식	16 관음불공	30 작법무(육간만다라선송대계작법)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3 상용영반	17 지장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5 화엄시식	
4 회심곡(화칭) 1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2 삼보통칭	46 약사여래불공	
5 회심곡(화칭) 2	19 중사관육	33 아침저녁중성	47 시련의식	
6 구병시식	20 중사영반	34 향수해례예불	48 청운의식	
7 관음시식	21 가사불사의식	35 혼자서하는 민관육(간단한관육)	49 영가왕생계축, 지옥계	
8 집안시식	22 신중작법39위	36 생일불공	50 49제, 천도재, 실가의의식 1,2,3,4,5	
9 방생의식	23 간단한 신중작법	37 상주권공49제의식 1	51 20일간 상주권공 범패교육 녹음테이프 30개 판매중	
10 사물 다루는 법	24 전통초석예불	38 상주권공49제의식 2		
11 안택	25 천수경/장엄염불	39 상주권공49제의식 3		
12 시다림	26 상주권공/각매/영산염불	40 상주권공49제의식 4		
13 산신불공	27 사시산단불공	41 제사불공		
14 미타불공	28 작법무(북창계천수바라)	42 삼신이운		

▶비디오 각 20,000원 / DVD 각 25,000원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제품 구입처 : 중무소 062362-8604 / 해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학장 해공 스님